



책의 맛

배곧해솔중학교
도서관 소식지
제11호 2021년 12월

발행처: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150-23 배곧해솔중학교 도서관 031-8063-1881

진정한 책을 만났을 때는 틀림이 없다. 그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과도 같다.

"There is no mistaking a real book when one meets it. It is like falling in love."

- 크리스토퍼 몰리

안녕하세요? 배곧해솔중학교 도서관입니다. 12월 소식지의 주제는 '크리스마스'입니다.

◆ 도서관 이용 안내

- 이용시간

평일 8:40 ~ 16:40

- 거리두기 후 도서관에서 열람 가능

- 대출 및 반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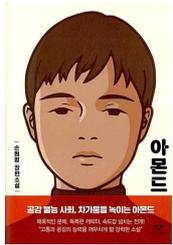
3권 30일

※ 2021학년도 동안 유지됩니다.

3학년 학생들은 12월 9일(목)부터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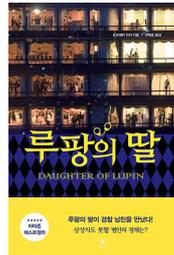
◆ 도서관 인기도서

3월부터 12월까지 가장 인기 있던 도서 9위를 알아보시다!



1위

아몬드
손원평
창비



2위

루팡의 딸
요코제키 다이
북플라자



3위

해리포터
J.K.롤링
문학동네



4위

너의 이름은
신카이 마코토
하빌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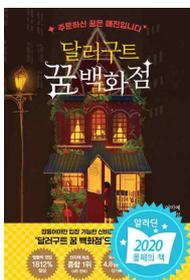
5위

이태원 클라쓰
광진
영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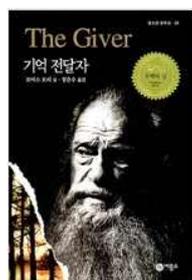
6위

날씨의 아이
신카이 마코토
하빌리스



7위

달리구트
꿈백화점
이미에
팩토리나인



8위

기억 전달자
로이스 로리
비룡소



9위

위저드 베이커리
구병모
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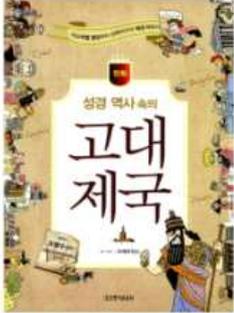
◆ 크리스마스에 뭐해?



크리스마스에 뭐해? 이거 보자!

1

성경 역사
속의 고대제국



2

눈의 여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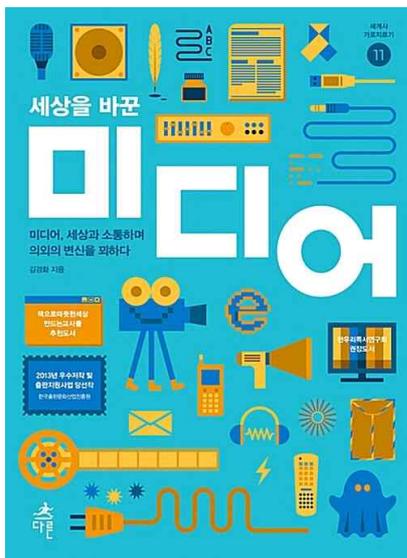


3

겨울왕국



◆ 세상을 바꾼 미디어



10706 김소연

<세상을 바꾼 미디어>는 미디어와 미디어의 종류,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책이다. 책 앞쪽 차례에서 내용과 페이지를 구분해놓았기 때문에 찾아보고 싶은 내용만 골라서 볼 수 있다.

미디어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신문이나 텔레비전처럼 대대적으로 뉴스나 오락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는 매스 미디어라고 하며, 음악이나 동영상 같은 다채로운 표현 매체는 멀티미디어라고 한다. PC나 USB메모리 같은 정보 처리 및 보존이 가능한 도구는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며, 인터넷처럼 새로이 등장한 네트워크 미디어는 뉴 미디어라고 한다. 또 어디든지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 전화나 음악 플레이어는 모바일 미디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책은 미디어의 역사를 소개하는 책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다른 책들이 미디어의 역사를 소개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

이 책에서는 이미 미디어라는 개념이 확립된 이후의 발전사보다는 사회적인 미디어로 자리 잡기 이전의 역동적인 기술사에 주목했다. 이 책을 통해 미디어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읽어 내고 스스로 교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 작가와의 만남

10월 8일 '페인트'의 저자 이희영 작가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11505 김민정

책을 읽어본 경험은 많지만, 작가와 만나는 건 처음이라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책을 쓰게 된 계기나 책을 읽으며 궁금했던 점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페인트 작가님의 강연은 단순 책 강연이 아닌 부모와 아이의 입장에 인생강연을 받는 기분이라 더 색달랐습니다. 이번 작가와의 만남으로 페인트라는 책의 비하인드를 알게 된 기분이라 너무 좋고 재미있었습니다.

20927 최수하

청소년 소설 페인트를 집필하신 이희영 작가님과 만나게 되었다. 작가와의 만남을 한다는 말을 듣고 소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궁금한 점을 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 이벤트를 신청하게 되었다. 페인트는 아동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기사를 보고 쓰시게 되었다고 했다. 누군가는 좋은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자라지만 누군가는 부모의 학대 때문에 제대로 꽃 피우지도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럼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는 무엇일까? 학대를 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자격이 있는 걸까? 페인트는 미래 아이가 면접을 통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에 NC센터의 아이, 주인공 제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가님은 부모님의 마음, 아이들의 마음을 들려주셨다. 때론 공감하며, 때론 이해하게 되었다.

작가님의 말씀 중 나의 나이와 내 부모님의 부모 나이가 같다는 말이 인상 깊었다. 부모님은 나보다 훨씬 오래 사셨지만, 부모가 된 나이는 내 나이와 같았다. 부모님도 부모님은 처음이라 서투를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껏 간과해왔던 것 같아 조금은 반성하게 되었다. 작가와의 만남은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내가 보지 않았던 구석의 모습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가족의 의미, 부모의 자격, 부모님의 마음, 보통의 기준, 작가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글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작가님의 말씀까지 여러 방면으로 생각이 키워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12월 추천 도서

12월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기념일로, 영어로
그리스도(Christ)의 미사(mass)를
의미 합니다.

크리스마스-
당신 눈에만 보이는 기적

12월의 어느 날



마음이 따뜻해지고
설레이는 로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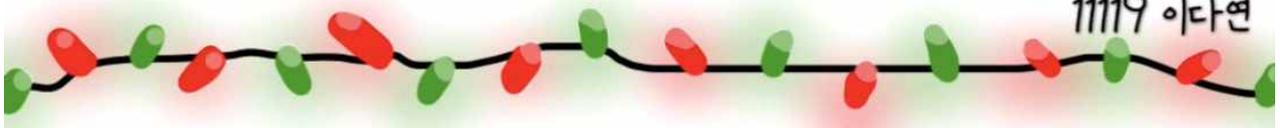
마더 크리스마스



마음이 행복해지고
몽글몽글해지는 동화



유명한 작가들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 크리스마스의 다양한 유래들



30620 이서현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기념일이자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다 같이 모여 크리스마스트리를 장식하고 선물을 받는 날이라고 해도 무색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들뜨는 날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크리스마스는 4세기 경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에 하루가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을 뜻했기에 크리스마스에 하루 전인 크리스마스이브가 유래된 것은 저녁(Evening)에서 이브를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크리스마스트리는 1915년 한반도로 식물채집을 하러 온 미국 식물분류학자 월슨에 의해 미국으로 건너가 크리스마스트리에 맞게 품종 개량이 된 것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토종 나무인 '구상나무(한국 전나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신종 명명을 하지 못하였고 구상나무의 기준표준이 미국에 속해있어 오히려 개량된 품종을 우리나라가 역수입을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구상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들면서 2012년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이브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을 수밖에 없는 캐롤입니다. 캐롤은 프랑스어 carole에서 온 말로 중세 프랑스인들이 둥글게 원을 만들어 추는 춤을 일컫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아는 캐롤은 13세기에 성 프란시스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마구간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5세기에는 영국에서 캐롤이 많이 만들어졌고 1521년에는 윈킨 드 워드에 의해 영국 최초의 캐롤집도 발간이 되었으며 그 뒤 민중적인 크리스마스와 결부되어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캐롤을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 뉴스 퀴즈! 퀴즈!

뉴스 퀴즈! 퀴즈!

2021.12.15. ~ 2022.1.7.

뉴스 키워드 찾고 퀴즈 풀고! 도장받고! 학용품 받아가자!



문제를 보고 신문속에서 키워드를 찾는다

선생님께 답지를 제출하고 도장을 받는다

도장 물구집에서 도장을 학용품으로 바꾼다!

◆ 사제동행 크리스마스 양초 만들기

크리스마스 양초만들기



12월 22일(수) 도서관 선착순 20명!
참여를 원한다면? 도서관에서 미리 신청하기

도서관에서 **크리스마스 양초** 만들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 ★ 일시: 2021년 12월 22일(수), 방과 후
- ★ 장소: 도서관
- ★ 신청방법: 도서관에서 직접 신청
- ★ 신청인원: 30명 선착순(학생 2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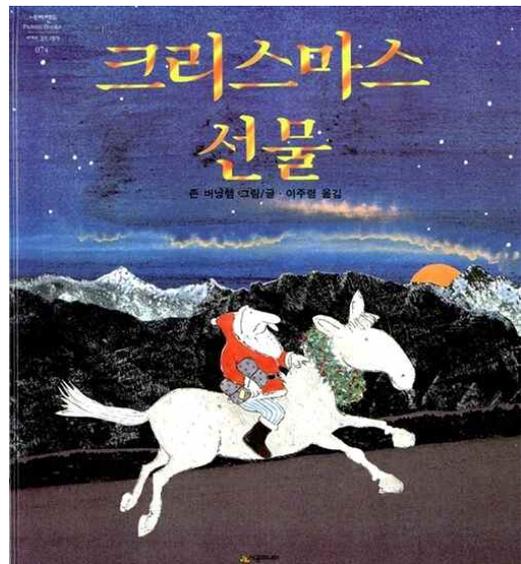


<눈사람 아저씨와 눈강아지>

동화 '눈사람 아저씨와 눈강아지'는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눈사람 아저씨와 아줌마의 다양한 표정과 옷차림을 보는 재미와 눈사람 스키 대회 등 신나는 모험과 마법 같은 환상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다. 눈사람 아저씨는 빌리의 손을 잡고 눈강아지와 함께 하늘로 날아오른다. 그러곤 아름다운 겨울 밤하늘을 지나 북극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빌리와 눈강아지, 눈사람 아저씨는 눈사람 스키 대회에 참여한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비치면 눈사람 아저씨와 눈강아지가 잘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말 궁금한 책이다. 이 책은 어린이들이 읽는 책이지만 학생이 읽어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크리스마스 선물>

동화 '크리스마스 선물'은 크리스마스에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고 이제 막 침대에 누워 휴식을 하려고 하는 차에, 딱 한 명에게 주지 못한 선물을 발견하고는 다시 길을 떠나는 산타클로스, 그것도 멀고 아주 먼, 아주 높은 곳에 사는 가난한 한 아이를 위해서 말이다. 게다가 한달음에 날아갈 수 있게 도와줄 순록이 아파서 병간호를 한 후 길을 떠나는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를 몇 시간 앞둔 한밤중에, 꼭 그래야만 할까 싶을 만큼 다소 무모할 것 같은 산타클로스의 결단이지만, 세상에서 유일하게 일 년에 단 한 번 산타클로스에게만 선물을 받는 한 아이에게 절망을 주지 않으려는 멋진 산타클로스 이야기이다. 저는 이 동화를 읽고 산타클로스가 아이에게 절망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다.



<산타와 함께 춤을>

동화 '산타와 함께 춤을'은 산타와 꼬마의 비밀스럽고 행복한 만남 온 세상에 깊은 어둠이 내려앉은 크리스마스이브이다. 어디선가 빨간 새 한 마리가 날아온다. 바로 산타 할아버지이다. 산타는 꼬마에게 선물을 주려고 마법의 주문을 외우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런데 산타가 꼬마에게 선물을 주려는 순간, 꼬마가 사라졌다. 몰래 온 손님 산타와 귀여운 꼬마의 비밀스럽고 행복한 만남을 담은 그림책이다. 재밌고 뒷내용이 궁금해지는 그런 동화이다. 이것 또한 어린이들이 읽는 책이지만 이 책 자체가 귀여워서 중학생이 읽어도 정말 재미있었다.

